

전남

서남해 大豊漁 “고마와요 목표해경”

불법조업 3년간 433척 단속... 중국어선 짝살이조업 막아 어장 보호

목포해양경찰서가 최근 3년간 중국어선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 등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지역 어선들이 풍부한 어획고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EEZ구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들은 쌍타망 323척, 유자망 78척, 단타망 42척 등 모두 443척에 달했다.

지난 2007년 총 230척 중 222척을 나포해 이중 8척 22명은 구속, 214척

에 대해서는 22억7천9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2008년에도 144척 중 구속 11척 29명, 122척에 26억9천1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시켰다. 올해는 79척을 나포해 11척22명을 구속하고 68척366명에 대해 12억1천1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이처럼 목포해경이 EEZ를 철저히 단속하며 관리해온 탓에 관내 어업인들의 어획고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목포수협 위판장의 조기와 꽃게 등의 어획고를 보면 2007년 758억원, 2008년 863억원, 올 11월

현재 689억원의 어획고를 보였다. 신안수협은 2007년 460억원, 2008년 558억원, 11월 현재 537억원에 달했다. 진도수협도 2007년 83억원, 2008년 97억원에 이어 11월 현재 131억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어민들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데다, 목포해경이 불법조업을 막아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승호 김모 선장은 “중국 어선들

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짝살이 조업을 하고, 그물 등 각종 어구를 바다에 버려 생태계까지 파괴시켰는데 해경의 집중 단속으로 어획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서 “해경이 더욱 치밀한 단속을 통해 어장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고마워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근질긴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아직도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잦다”며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우리 어민들이 맑고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남쌀 좋아요” 서울서 홍보활동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서울식품박람회를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남쌀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농협은 19~22일 서울 코엑스 특별전시관에서 전남 우수브랜드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고흥군 행정인턴 ‘좋은 아이디어 발표회’

고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행정인턴 25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근무성적 평가와 병행해 ‘좋은 아이디어 발표회’를 실시했다.

군은 당초 16명의 행정인턴을 배정 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9명을 추가 채용, 25명의 인원을 사회복지분야 등 전공에 맞게 실·과·소 및 읍면에 적절히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좋은 아이디어 발표회에서는 가운누리, 우정별, 발표포의 3개팀이 25건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중 고흥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확여행

을 유치시키는 방법, 고흥의 10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레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 획기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젊은이들이 행정인턴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동안 전문 직무능력을 키워 사회 적응력을 길러 주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면서 “발표회에서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순천 “저류지 만들어 홍수 막는다”

동천 주변에 24만5천㎡ 규모... 공원 조성도 함께

순천시 시가 저류지(貯溜池)를 활용한 하천 홍수대책을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내를 관통하는 동천 하류 일부 지역이 매년 홍수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에 대한 대책으로 동천 주변에 저류지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저류지 부지 매입에 착수했다.

순천시의 구상선 폭우 등으로 동천물이 일시적으로 불어날 경우 이 불어난 물을 동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저류지로 유입시켜 동천 수위를 낮춤으로써 주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천 물이 빠지면 저류지에 모인 물을 다시 동천으로 배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동천은 여름철 폭우 때마다 하류쪽인 풍덕동, 오천동, 남정동 등 주변

일대가 80cm~1m높이로 물이 차면 서 일부 주택을 포함한 주변 30여만㎡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저류지 크기는 24만5천㎡로 순천시는 오는 2011년까지 부지 매입을 끝내고 2012년에는 저류지 조성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저류지는 잔디를 심어 평상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공원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하천 범람 대책으로 저류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류지가 만들어지면 홍수도 막고 공원 공간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곡성 근촌보건소 준공

진료 서비스·주민 쉼터로

곡성군은 지난 18일 조형래 군수 지역주민과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거리 근촌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6개마을 500여명의 건강생활을 책임져 온 근촌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비좁은 탓에 찾아오

는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현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 주민들의 진료 서비스와 동네 사랑방과 같은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형래 군수는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점차 건강생활에 불편이 없고 지역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시설로 다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서해바다 새우 죄다 어디 갔나”

3년째 어획량 감소... 김장철 특수 실종 어민들 한숨만

김장철을 앞두고 전남 서해안에서 새우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전남 서해안 등 전국에서 잡히는 새우의 70%가 거래되는 신안지도수협 위판장에는 최근 “신안 우이도와 진도, 영광 칠산 앞바다 등 서해안에서 새우가 잡히지 않는다”는 어민들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김장용 첫새우와 생새우 어획량이 하루 평균 1~2드림(1드림 200~250

kg)에 불과하다.

심각한 점은 이 같은 현상이 최근 3년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6년까지 매년 평균 7만여 드림(새우잡이 철인 5~12월)을 기록한 새우의 어획량이 2007년 이후 5만여 드림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도 5만 드림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대다수 어민들이 기름갈 등 각종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새우 풍어’를 이룬 인천, 강화 지역까지 원정 조업을 나가고 있다. 또 현재 위판장에서 생새우는 1상

자(5kg)에 3만~4만원, 첫새우(보통 첫)는 1드림에 40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이때보다 20%가량 오른 가격이라서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에 힘들어하는 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위판장 관계자는 22일 “최근 몇 년간 전남 서해안에서 새우가 잡히지 않아 어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파리떼 출현, 수온상승, 어장 황폐화 등의 요인으로 첫새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농어촌공 전남본부 ‘영농지원단’ 발대식

급·배수시설 점검·정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최근 담양군 대전면 경광리 대야제 주변에서 ‘영농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는 영농지원단은 재해 사전예방과 영농기 원활한 응수공급을 위해 겨울기간 동안 급·배수시설물을 점검·정비한다.

또한 용·배수로와 저수지 양·배수장 풀을 베어 축산농가에 제

공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자매결연 단체와 함께 저수지 주변 정화활동을 벌인다.

전남지역본부는 연인원 4천410명을 투입, 용·배수로 준설 214km와 수초제거 94km, 시설물 점검·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겨울낙지요~ 겨울낙지”

강진 사초리 어민에 효자품목... 어판장 분주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에 자리한 강진군 수협 신선출장소(소장 김좌현)의 겨울잡은 낙지경매로 시끌벅적하다. <사진>

지난 22일 해가 떠오르자 사초리선착장 주변에 하나 둘씩 배가 들어서더니 커다란 대야를 든 어민들이 설 새우가 어판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날 경매장에 들어온 낙지는 바람이 다소 불어 수확량이 줄었

는데도 2천여 마리에 이르렀다.

날씨가 파랗할 때는 갯벌에서 낙지구멍을 찾아 손으로 잡아 경매에 나서지만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통발이나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다.

전통적인 어촌마을인 사초리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어촌보다 소득수준이 높다.

겨울에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어



민들의 낙지잡이는 연간 3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 쉬는 날들을 빼고 해보면 경매금액이 하루에 2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public notic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국민법률경매' and various legal notices.